

류현진, 시즌 3승 사냥 13일 애틀랜타전 등판

2년 만에 타석에도 들어서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사진)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류현진을 13일 오전 8시 20분(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 경기 선발로 예고했다.

현재 기자들도 토론토가 12~14일 진행되는 애틀랜타와 3연전에서 로비 레이, 류현진, 로스 스트리플링을 순서대로 낸다고 전했다.

닷새 휴식을 취한 류현진은 시즌 3승을 노린다.

지난달 26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도중 오른쪽 엉덩이 근육통을 호소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그는 복귀전이었던 이달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시즌 2승을 따냈다.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을 확인한 만큼 부담을 덜고 마운드에 설 수 있다.

류현진은 애틀랜타를 상대로 통산 6경기에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2.37로 준수한 성적을 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만나 5이닝 1피안타 3볼넷 8탈삼진 무실점 역투로 승리를 따낸 좋은 기억이 있다.

이번 등판에서는 '타자 류현진'의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다.

아메리칸리그에 속한 토론토와 달리 내셔널리그 소속의 애틀랜타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어 투수도 타석에 들어선다. 두 팀의 대결은 애틀랜타의 홈경기로 치러져 내셔널리그 규정을 따른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에서 마지막으로 배트를 잡은 건 LA 다저스에서 뛰던 2019년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이다. 당시 2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토론토는 9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타격 훈련 중인 류현진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이제훈·탕준상 “유품정리사 인식 개선되길”

영화 '무브 투 헤븐' 넷플릭스서 14일 공개

넷플릭스 영화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에 출연한 배우 이제훈이 영화가 담은 유품 정리에 대한 의미를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김세별 유품정리사와 김성호 감독, 이제훈·탕준상 배우가 함께한 대담을 10일 공개했다.

영화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유품정리사 그루와 그의 후견인 상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이사를 도우며 그들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은 이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과정을 담는다.

공개된 영상은 작품에 영감이 된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의 저자인 김세별 유품정리사와 '무브 투 헤븐'의 김성호 감독, 두 주연 배우 이제훈, 탕준상과의 만남을 담았다.

유품정리사는 유족 및 의뢰인을 대신하거나 고독사일 때 고인의 유품이나 재산, 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유품정리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김성호 감독은 “단순히 청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제훈은 “유품정리사라는 고귀한 직업



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리를 잘 정리해줄 수 있다면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축복이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탕준상 또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본다면 (유품정리사가)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시선이나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김세별 대표는 “아직도 관심이 없다. 이런 (돌아가신)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구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무브 투 헤븐'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달라도 너무 다른 유품정리사 상구(이제훈 분)와 그루(탕준상)의 만남에도 주목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그루는 사회와의 소통에는 약하지만 타고난 관찰력과 깊은 시선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낸다.

영화는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삼성 원태인, 4월 MVP 선정

총점 78.05점... 압도적 득표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21·사진)이 압도적인 지지 속에 프로야구 4월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1 신한은행 올 시즌 KBO리그 4월 MVP에 원태인을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눈부신 활약으로 표를 쓸어 담았다.

원태인은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31표(96.9%), 팬 투표 35만3764표 중 20만 9486표(59.2%)를 얻었다. 총점 78.05점으로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자단 투표에서 1표, 팬 투표에서 2만

7678표로 총점 5.47을 기록한 2위 강백호(KT 위즈)도 가볍게 따돌렸다.

원태인은 4월 팀의 에이스로 맹위를 떨치며 팀을 선두로 이끌었다.

4월 5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평균자책점 1.16을 기록했고 해당 부문에서 모두 리그 1위에 올랐다. 또한 36탈삼진(2위), 이닝 당 출루허용률(WHIP) 1.00(공동 4위) 등 투수 부문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원태인의 활약을 앞세운 삼성은 지난달 28일 기준 2015년 정규시즌 마지막 날 이후 2081일 만에 리그 단독 1위(개막 후 10경기 이상 기준)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원태인은 4월 13일 대구 한화 이글

스전과 18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뛰어난 구위로 각각 10탈삼진씩을 수확,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을 달성했다.

이는 삼성 소속 선수로는 역대 4번째다. 10개 구단을 통틀어서도 KIA 타이거즈 양현종의 2014년 5월 9일 대전 한화전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다.

원태인은 10일까지 평균자책점 1.18로 이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국내 선발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승선 가능성도 높다.

4월 MVP로 선정된 원태인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75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카드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밴드 '고래야', 디지털 싱글 발매

전통악기 음색 조화 이뤄 댄스곡 '사랑의 근본' 발매

크로스오버 밴드 '고래야'가 10일 새로운 디지털 싱글 '사랑의 근본'을 발매했다.

'사랑의 근본'은 경기민요 창부터 중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이 허다가 놓쳤으니 나혼자만이 고민하는게 이것이 사랑의 근본인가"라는 노랫말에서 아이디어 얻은 곡이다. 사랑을 고민하는 복잡한 감정을 노래했다.

작년 고래야의 정규 4집 발매 공연에서 라이브로 처음 선보인 곡이다. 팬들의 입소문을 타며 여러 차례 음원 발매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 발매되는 디지털 싱글 버전은 어쿠스틱 악기가 중심이 됐던 기존 고래야 스타일에서 벗어났다. 드럼머신이 만들어내는 비트 위에 거문고, 대금, 팽과리 등 한국 전통악기의 음색이 조화를 이룬 댄스곡으로 재탄생했다.

고래야는 한국의 전통악기인 거문고, 대금, 장구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퍼커셔니스트, 보컬리스트로 이루어진 6인조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이다.

2010년 데뷔 이래 38개국 이상에서 공연했다. 지난해 발매한 정규 4집 '박수무곡'이 호평을 들었다. 앞서 미국 공연라이브로 처음 선보인 곡이다. 팬들의 입소문을 타며 여러 차례 음원 발매 요청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디)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